



정교회주보

제2582호

2026년 6월 2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바울로와 실라가 갇혀 있던 빌립보 감옥 유적으로,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다.



마태오 제3주일
성 율리아노스 순교자
(제2조 • 조과 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81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5,1~10 (봉)133
 - 복음경 : 마태오 6,22~33 109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로마 5,2)

[24회] 한밤중에 열린 구원의 문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종을 고쳐 준 일로 고발된 바울로와 실라는 혹독한 매질을 당한 뒤 필립비 감옥 깊은 곳에 갇혔다. 발에는 차꼬까지 채워진, 모든 것이 막힌 듯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밤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하느님께 기도하며 찬미가를 부르자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모두 풀린 것이다.(사도행전 16,25-26)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문책이 두려워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바울로는 외쳤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네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사도행전 16,31) 이 말씀을 들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기쁘게 주님을 받아들였다.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느님께 드러진 바울로의 찬미는 단혀 있던 감옥의 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두려움에 떨던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까지 새롭게 열어 주었다.

믿음과 불신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



민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적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버린다면 구원의 길로 가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세속적인 합리화에 빠져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길이 마치 행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지내게 됩니다.

각자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며 성숙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항상 믿음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 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골로사이 2,8)

이러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많은 영향을 주어 바른 믿음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멀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에 현혹되어 분열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걷은 멀쩡하지만 안은 굶아가고 있는 상처와도 같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며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자 시도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에 대해 바른말을 하고 지적하여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헛된 이론에 빠져 그들의 생각이 마치 바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살펴보고 판단하고, 교회의 질서와 평화 그리고 발전을 위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여 얻은 값진 영적 가르침을 계승하고 바른 믿음을 따르며 교회를 굳건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저 웃어주십시오...!

시모노페트라 수도원의 에밀리아노스 수도원장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당신의 형제에게 다가갈 때,
남편이나 아내로서 배우자에게 다가갈 때,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
무슨 말을 하려 하든지, 무슨 말을 할 생각이든지
먼저 따뜻한 말 두 마디를 건네고 나서 말하십시오.
그 말이 그에게 위안이 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숨결 같은 말이 되어,
'아 이제 안심이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다른 이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만났을 때 기뻐서 하늘로 뛰어오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몸으로, 영혼으로,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도록
자신의 비밀스러운 작은 가방 안에,
마음속에, 가정 안에 아픔을 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당신도 내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나는 웃고, 소리 지르고, 뛰어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파하며,
나의 슬픔을 감추기 위해 웃고, 소리치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그저 웃음을 선사하십시오

주간 예배 안내

* 6월 24일(수)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미국

시카고 교구 초청 온라인 강연

지난 5월 27일(수), 미국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의 그리스정교회 '모든 성인들 성당' 공동체의 초청으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온라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은 「예배 후의 예배(Liturgy after the Liturgy)」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예배가 성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서울 성당

외국인학교 학생들 방문

지난 10일(수), 서울외국인학교(Seoul Foreign School) 학생 130명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약 1시간가량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아타나시아 봉사자로부터 정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 식

■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 키이우 수도원 공격 규탄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와 세계 총대주교청은 지난 6월 15일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역사적인 라브라 수도원을 미사일로 공격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공동의 종교적·문화적 유산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기념물에 대한 어떠한 유사한 공격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깊은 슬픔과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 명명축일 기념 성찬예배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께서는 명명축일을 맞아 지난 6월 11일(목), 고향인 임브로스(현 튀르키예 귀체아다)의 성모 안식 대주교와 성당에서 성찬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이번 축일 기념은 1991년 세계 총대주교로 착좌한 이후 처음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이 아닌 곳에서 거행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예배에는 루마니아의 다니엘 총대주교와 불가리아의 다니엘 총대주교가 함께 집전하며, 정교회의 일치와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 故소티리오스 대주교 4주기 추도식 및 철야예배를 마치고

지난 6월 12일(금),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로만 대신부,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크리스토퍼 보제의 집전과 9개국 출신 신자들의 참례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4주기 기념 철야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과와 대만과를 시작으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신자들이 돌아가며 예수 기도를 바쳤고, 조과와 성찬예배,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안디도로와 함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사진과 메시지가 담긴 기념 카드가 신자들에게 배부되었으며, 끝으로 수도원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는 1시과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설교가 이어졌으며,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묘소에서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후 오찬을 함께했으며, 성화 작가 소존 교수가 고인과 관련된 인상 깊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철야예배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기억되시는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